

생산·수출액 급증... '수산물 1번지' 위상 공고히 다졌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1년
'안전 이상無' 믿고 먹는 전남 수산물
(5·完)전남도 판로 확대·홍보성과

다양한 시책 소비 활성화 견인 '위기를 기회로'
"생산·유통 과정 안전 확보 총력...국민 신뢰 확보"

전남도가 지난 1년간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울인 선제 노력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위협성 우려를 불식시키며 오히려 '국내 수산물 생산 1번지' 위상을 공고히 다지는 기회로 만들었다.

생산·수출액 수치 상승을 비롯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 체계·대응책 마련을 비롯해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 전남도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남 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2천200만5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4천923만4천달러)보다 29.6%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액 증가율은 김 47.5%(1억7천50만달러→2억5천141만9천달러), 톳 25.5%(871만9천달러→1천94만5천달러), 미역 25%(1천339만2천달러→1천673만4천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7월 전남 수산물 생산량은 154만3천96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6만4천649t)보다 1.3% 감소했지만 생산액은 1조8천108억8천981만원에서 2조1천17억6천470만원으로 16%나 늘었다.

김 가격이 전세계적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안전성을 확보한 신안군수협, 완도금일수협, 진도군수협 등 도내 주요 위판장 대다수에서 전년 대비 위판량·위판액 모두 증가했다.

이는 전남도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전남도는 도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만 쿠팡·카카오·남도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과 서울·야산·당진 등지에서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총 24회 진행해 142억6천381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올해에도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1개 사, 매출 2억6천만원), 대도시권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매출 3억원), 남도장터 기획전(3회, 매출 9억원),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매출 5억원, 수출 상품 34억원) 등에 나섰다.

이 밖에도 일본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남도가 지난해 5월 정부 비축 수산물에 양식수산물을 포함해줄 것을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가 같은 해 11월 수용한 바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남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해역 해양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지속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전남 수산물'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다양한 판촉 행사를 통해 안전한 전남 수산물을 알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유통 과정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전남 청정 수산물이 국민 신뢰를 얻고, 다양한 소비처 발굴로 이어져 어촌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서원 기자



'붉은 유혹' 상사화 물결 속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9일 오전 영광군 불갑사에 상사화가 만개해 방문객들에게 가을을 알리는 붉은 손짓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전남 내달 14일부터 국감

21일 전남도·22일 광주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권 피감기관의 경우 14일부터 국감이 본격 시작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0월 14일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나주 혁신도시 내 16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산자위는 이번 국감에서 현장 시찰도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감사 1반 주관으로 10월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오후에는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대전고법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 가정법원에 대한 국감을, 오후엔 광주고검·광주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전남도와 광주시에 대한 국감은 각각 21일과 22일 열릴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통상 2

년에 한 번씩 받는데,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로 전남도의 국감이 순연되면서 올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동시에 국감 대상이 됐다.

행안위는 10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를 대상으로, 오후엔 전남경찰청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2일 오전에는 광주시청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오후엔 광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국감을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1일 여수에서 해양경찰청·여수항만공사·국립해양생물자원관, 22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 '지역 불균형' 심각

수도권 보다 지방 비싸...전남 동부·서북도 격차
17개 시·도 중 광주 5번째로 저렴...전남은 11위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뿐만 아니라,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동부권보다 서남권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더욱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산)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산)은

사)이 29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8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당 22.2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제주가 26.729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강원 24.3207원, 세종 24.1343원 등이다. /김진수 기자

광주는 23.1708원으로 서울, 인천, 경기, 울산에 이어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저렴했다.

전남의 소비자요금은 MJ당 23.808원으로 서울 대비 15.54원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다.

전남 지역에서는 MC에너지(4개 시·군), 대화도시가스(여수시), 전남도시가스(6개 시·군), 해양에너지(8개 시·군) 등 4개 민간도시가스사가 주택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면에 계속

Today

광주에 첫 동물화장장 들어서나 6면
ArtBank 작품판대전 막을라 14면
김도영 '40·40' 오늘 마지막 도전 16면
※국군의날 대체휴무 1일자신문 쉽니다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인증캠페인

상점에서

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10,923₩

영업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23,573₩

문 닫고
냉방방하기
₩27,214₩

고효율 조명
이용하기
₩75,842₩

영업시간 외
조명 소등하기
₩80,346₩

낮시간 자연 채광
이용하기
₩9,874₩

개방형 냉방고
문 닫아 사용하기
₩161,618₩

승강기
적중 운행하기
₩32,891₩

CMYK